



기본방향

II

기본방향

교육상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교육지표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



Engaging Classrooms, Joyful Schools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5대
주요시책

1.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
2.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교육 강화
3.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 추진
4.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5.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4대 역점 과제

학교문화혁신
정착

청렴한
조직문화
강화

남북교육교류
추진

생태
인문학적
감수성
함양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 광주교육은 치열한 경쟁교육과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을 지양하고, 협력교육·상생교육 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은 광주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

- 광주교육은 광주학생독립운동부터 5·18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의향 정신을 계승한다.
-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을 가르쳐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을 육성하고자 한다.
- 나아가 인권·평화·통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계 속의 민주시민'을 기르고자 한다.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 광주교육은 소통과 협력의 배움 중심 수업으로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는 능동적 사고인'을 기르고자 한다. 또한 공공성·민주성·자발성·공동체성에 기반을 둔 학교문화혁신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고자 한다.

광주교육의 철학

인간주의 배움과 성장

- 인간주의 교육은 학생이 중심에 있는 교육이다. 이는 획일적 지식 습득 교육이 아닌 '학생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삶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 배움은 학생들이 협력성과 동료성을 바탕으로, 삶의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해결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수업 등의 재구성 노력이 필요하며, 협력·체험·참여·표현 등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성장은 배움을 통해 학생의 인지구조·신체·역량이 변화되고, 나아가 학생의 환경과 미래가 변화됨을 뜻한다. 또한 그 경험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성 공익과 공유

-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이 사회 전체의 필요성과 이익에 부합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는 교육이 공익적 가치와 태도를 추구해야 하고, 모든 교육적 활동은 구성원 전체에게 공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교육의 공익적 가치는 교육 본질 추구에서 발견된다. 이는 교육의 존재 이유인 인성교육과 자아실현, 시민교육과 인재육성의 상호 관계 속에서 설정된다.
- 교육의 공익적 태도는 교육이 사익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 일부 또는 개인에 의해 전유되어서는 안 됨을 말한다.
- 교육의 공유는 교육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기회균등의 보장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에 따른 교육 수혜 차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 민주성은 공동체 구성원이 주인임을 전제한다.
- 민주적 소통은 구성원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공동체 주요 문제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 민주적 참여는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구성원 모두의 실천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함을 의미한다.



- 자발성은 살아있는 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성원들의 태도이다.
- 자발적 태도는 구성원들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자존감과 효능감이 커졌을 때 나타난다.
-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권한과 책임 속에서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공동체성은 교육 제반 문제가 개별적 접근보다 호혜적 접근으로 이뤄졌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됨을 바탕으로 한다. 이때 공동체의 질은 구성원들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 공동체성은 개인 간의 차이·다양성 인정에서 출발한다. 또한 구성원이 함께 공존하며 나아가는 상생의 정신을 지향한다.
- 공동체성은 구성원 간의 차이가 나눔과 협력의 문화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이 문화적 분위기는 교육민주주의를 위한 집단지성의 바탕이 된다.





광주교육의 기초

아이들에게 학교 폭력과 차별이 없는 학교를!

-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떠한 폭력과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별·인종·능력·경제배경·장애유무 등과 상관없이 존중과 배려, 돌봄과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학부모에게 교육비 걱정을 덜어주는 교육제도를!

-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배경에 관계없이 학생의 특성과 능력에 맞게 교육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직원에게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 교직원은 학생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업무 및 잡무 경감을 위한 지원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학교는 자율과 책무가 주어지는 책임 경영을!

- 학교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자유와 책임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다. 학교 구성원은 스스로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역 사회는 생기 넘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 학교는 마을을, 마을은 학교를 서로 품고 있다. 그 속에서 학교와 마을과 아이들은 건강한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와 마을은 정신적·물질적 자원이 결합한 새로운 마을교육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